

## 1. 십일조 논쟁

"십일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구약 제도이므로 현재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vs 신약에서도 재물과 현금에 대한 원칙은 지속되므로 지금도 십일조를 해야 한다."

"십일조는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vs 마음에 정한 대로 자유롭게 해야 한다."

"소득 10%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Vs 꼭 10%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Vs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통로이다. Vs 기복신앙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여러분은 십일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현금을 드릴 때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들게 번 돈,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수입, 다양한 지출 항목들을 생각하다 보면,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망설임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십일조를 할까요? 십일조를 하는 게 맞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신과 다름없는 힘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삶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돈이 지닐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돈 중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십일조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 후 멜기세덱을 만나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득 일부를 드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재산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십일조는 하나님이 내 삶과 재산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현금을 단순히 계산하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드리면 내 손에 남는 것은 90만 원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십일조 정신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번 것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내 삶과 재산(100만 원)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그중 90%를 사용하고 10%를 주인에게 돌려드린다."

현금의 핵심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출처와 궁극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가치와 영향력은 점점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현금, 즉 십일조를 드리는 습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키우는 훈련이 됩니다. 현금은 단순한 금전적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금, 그렇다면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의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십일조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도, 믿음을 강제하는 기준도, 신앙의 결과를 결정짓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이듯, 현금도 개인의 자발적 신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국 십일조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십일조는 구약 제도라 지금은 필요 없다"는 주장과 "신약에서도 여전히 원칙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논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_\_\_\_\_

- 현금을 드릴 때 솔직히 '아깝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 \_\_\_\_\_

-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_\_\_\_\_

- 아브라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 \_\_\_\_\_

- 십일조를 "신앙인의 의무"로 강조하는 것과 "자발적 고백"으로 강조하는 것 중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_\_\_\_\_

- 지금 내 상황에서 헌금(십일조)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가장 바른 태도일까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일하여 얻은 모든 것이 결국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헌금을 드릴 때 계산하게 되고, 아까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며, 내 삶의 필요와 현실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헌금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